



편집인 칼럼

# 농업인의 고마움을 알자!

■ 최운홍/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본격적인 영농철이 찾아 왔습니다.

저도 텃밭에 고추, 상추, 토마토, 가지를 심고 복합비료도 한차례 시비를 하였습니다. 농사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의 깊고 넓은 농업지식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5세기 후반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자 공신에 책봉되어 예조판서와 좌찬성을 지낸 강희맹(姜希孟·1424~1483)이 말년에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농사경험과 견문을 엮은 금양잡록(衿陽雜錄)이라는 농서(農書)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씨뿌림의 이르고 늦음에 따라 풍년이냐 실농이냐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선인들은 이 농사의 적기를 「天時」라고 불렀습니다.

강희맹은 천시(天時) 다음으로 지력을 중시하였습니다. 땅이 다습하고 기름지면 일찍 심는 것이 좋고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면 조금 늦게 심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땅이 기름진데 늦게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땅의 힘에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데 일찍 씨앗을 뿌리면 지력이 곡식의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5백년전의 농업지식으로는 참으로 탁월한 과학영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이러한 땅이 가진 이로움과 오묘함을 「地利」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농사짓는 사람의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天時와 地利를 아무리 잘 맞추었다 하더라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풍작을 거둘수가 없다면 부지런한 제조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근면한 노력을 옛 농서에서

는 「人事」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다시말해 천시·지리·인사는 오늘날의 현대 과학영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여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농업인들은 그 옛날 강희맹이 衿陽(지금의 경기도 시흥)에서 농사지으면서 썼던 금양잡록의 교훈을 따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농약이 없고 비료가 없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흉작과 기아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까.

병해충이 발생해도 방제할 약이 없어 속수무책이었고 오직 신에게 빌어보는 마음의 방제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땀별속에서 온 식구가 매달려야 했던 중노동은 기억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의 발달로 품종개량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지긋지긋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획기적인 안전한 농약들이 개발 보급되어 사시사철 풍성한 농산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6.6%인 300여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적은 농업인이 근대화된 농업으로 4900여만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학영농을 위해 애써온 우리 농업인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 땅에서 땀흘려 가꾸고 생산한 농산물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친환경이든 친환경이 아니든 모두가 안전한 농산물입니다.

지금 농촌은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시간까지 퇴약별을 누벼도 하루가 짧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도시인들도 눈을 한번 돌려 농업인과 그들의 노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Y

